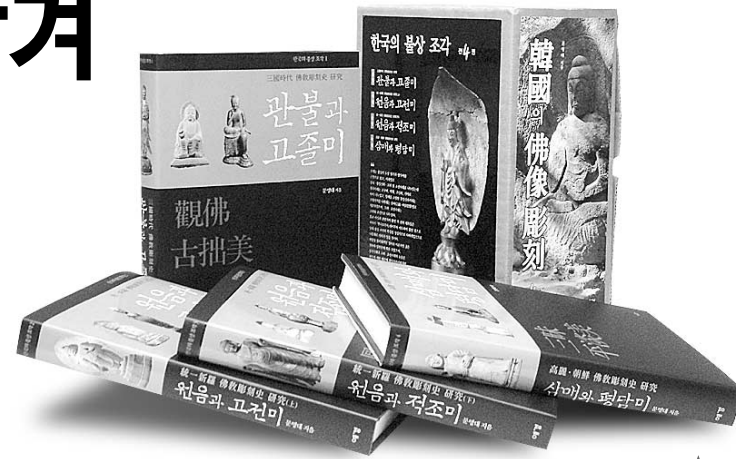


불상엔 그 시대의 이상형 담겨

삼국시대 → 청순미 · 古拙美
 통일신라 → 고전적 · 원숙미
 고려시대 → 소담하고 단아
 조선시대 → 푸근 · 평담미

‘한국의 불상조각 전 4권’

문명대 지음
 예경 / 각권 5만원



“옛 선인들은 불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 지난 40여 년이 곧 한국미술사연구회장인 문명대 교수(63, 동국대 미술사학과·사진의 학문 역정(歷程)이었다.

그동안 문 교수가 의문을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집필한 논문만도 100여 편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우리 선인들이 불교 미술을

보고 느낀 것은 영험함, 나아가 영험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 자주 나타나는 ‘영험(靈驗)’이나 ‘영험성(靈驗性)’은 비록 추상적인 용어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를 관류하는 하나의 진실로서, 미술가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미술의 조형의지와 미술사의 원리가 곧 ‘영험’에 있다고 문 교수는 말한다.

“불교의 영험성은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불

(觀佛)과 고졸미(古拙美)를 비롯해 통일신라시대를 담은 1권 ‘원음(圓音)과 고전미’와 2권 ‘원음과 적조미(寂照美)’,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조각사를 담은 ‘삼매와 평담미(平淡美)’의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사상과 관련지어 불인 각 권의 제목은 지은이가 <한국조각사>(열화당, 1980년)에서부터 시도해 왔던 것으로, 당대 불상 조각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문 교수는 말한다.

“불교의 영험성은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불상에는 당시 우리 민족의 이상형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청순·고졸한 미를,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전적이고 원숙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불상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불교가 국교(國敎)였던 고려시대에는 민중들의 영원과 소담하고 단아한 미를, 조선시대

에는 푸근하고 평담한 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문 교수는 “평소 한국 불상에 관한 논문을 집대성해 보고 싶었다”며 “우리나라 불상 조각의 최고 걸작인 토함산 석굴암 불상에 대한 논문을 모은 <토함산 석굴>(한·연, 2000)을 포함해 <한국의 불상 조각>는 모두 5권이 되는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미술사학계 원로 진흥섭 교수를 비롯한 지인들은 “이번 논문집은 문 교수 학문의 최종 성과물이 아니라 중간 점검 정도”라고 말한다.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불교미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간다라 지역의 불교미술을 분석하는 학술연구를 2005년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불화> 개정판을 준비하는 등 문 교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미술사연구의 전기를 마련한 문 교수의 끊임없는 연구 성과를 미술사학계 모두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news.com

문명대 교수 논문 92편 시대별 정리

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인(因)을 지음으로써 좋은 결과인 영험이 나타난다는 원리는 연기적 영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험성의 원리를 직·간접적으로 추구해 온 논문 92편을 선별해 시대별로 정리한 책이 최근 선보인 <한국의 불상 조각>이다. 책은 삼국시대의 불교조각사 연구를 모은 ‘관불

시고고 있다.

“시대에 따라 예술 작품의 형태가 변해듯, 불상에는 당시 우리 민족의 이상형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청순·고졸한 미를,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전적이고 원숙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불상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불교가 국교(國敎)였던 고려시대에는 민중들의 영원과 소담하고 단아한 미를,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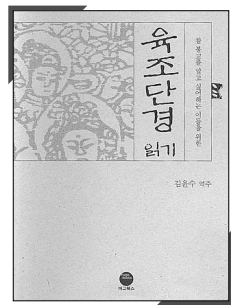
마음 속 부처를 만나는 길

“우리의 무지가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본래 가진 지혜로 실상(實相)을 직시한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육조단경 읽기>를 펴낸 김윤수(53) 사법연수원 교수, 그는 1981년부터 90년까지는 판사로, 이후 10년간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된 이래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뒤늦게 접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은 지은이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교에 접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불교입문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육조단경>

‘육조단경 읽기’

김윤수 역주
 마교북스 / 1만2천원



본문을 쉽게 번역하고, 500여 항목에 달하는 기초 지식과 용어풀이를 주해로 곁들였다. 또한 기존의 ‘둔황본 육조단경’ 번역본 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육조단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시대의 ‘사무침’ 표출 효림스님 첫 시집

‘흔들리는 나무’

효림 시집
 책만드는 집 / 6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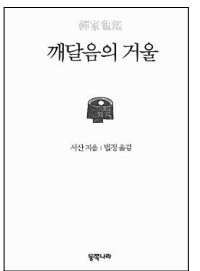
종을 울려야지”(‘운수객’ 따라 운수납자의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게 하자”(‘불은 한 사상’)며 “질기고 모진 묵숨”(‘민초’)을 지닌 민초들이 ‘역사의 주인’(‘깨어나라’)이 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홍섭 씨는 “오늘날 우리 시단에서 부족한 것은 테크닉도, 언어의 세련도, 새로운 형식의 창조도 아니다. 진실로 부족한 것은 시인이 이끌어 안고 가는 ‘사무침’이다”며 “전통 선인들이 보여준 정신과 맥을 잇고 있는 효림의 시에서는 순정한 정신이 뿜어내는 ‘사무침’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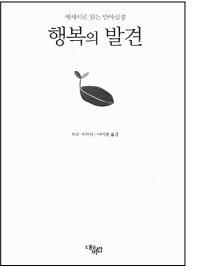
<깨달음의 거울>(서산 지음, 법정스님 옮김, 동쪽나라, 1만2천원)=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이 50여권의 경론과 조사 어록들 중 수행자에게 요긴한 것만 모아 쓴 <선가귀감>이 <깨달음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재출간됐다. 1961년 선학원판과 원저사판, 송광사 언해본 등을 참고해 <선가귀감>의 번역역을 시작한 법정 스님은 이번에 선보인 개정판에서 86개의 경우를 원문과 함께 담았다.



<안락한 참선법>(글/그림·사진 우학 스님 지음, 좋은인연, 1만원)= 대구 영남대학교·관음사 주지로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우학 스님의 참선 지침서. “최상승선이라 일컬어지는 간화선 수행법의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스님은 오랜 수행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안락한 참선법>을 펴냈다. 책에서는 수행의 예비 단계에서부터 수행지침과 수행문답, 완성 단계에 이르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세이로 읽는 반야심경 행복의 발견>(히로 사치야 지음, 이미경 옮김, 대숲바람, 9천5백원)= 불교 교리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 히로 사치야가 에세이로 풀어 쓴 <반야심경>. 1990년 일본 NHK 위성 제2텔레비전 에서 방송한 ‘히로 사치야의 반야심경 입문’의 방송원고를 편집한 이 책은 <반야심경>의 핵심사상인 ‘공(空)’을 평범한 일상으로 풀어내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직 스님	지영사
2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현구원
3	과학명상법	헤버트 맨슨	학지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5	해우소에서 만난 린스님	박기영	좋은인연
6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고요아침
7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8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9	불교인을 위한 기독교 바보보기	회암 스님	부루나
10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현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에시이문 전화: (02)737-0695

교승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누어주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여한 모습 - 세계 최초로 교승 정명주 스님께서 친견한 사무상주 시방불 사진입니다.

佛心天地海風
 가정에도 사무살에도 사업장에도 壽松·鄭·路·主 스님의 견여래 사진과 男·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매운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평평 습니다.
 ●佛心: 부처님 가르침이란
 ●天: 높거라 ●地: 깊거라 ●海: 넓거라 ●風: 바람이려니



장소: 청송중앙산
 시간: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가로 51cm x 세로 66cm
 가격: 100,000 원



규격: 가로 51cm x 세로 66cm
 가격: 100,000 원



규격: 가로 51cm x 세로 73cm
 가격: 100,000 원

귀의 삼보하옵고 교승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접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찍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청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농협 821146-52-038830 [예금주: 정지완]
 ■연락처: 055-275-1372 / 055-262-0928 ●휴대폰: 019-574-0928 교승 불행

경남 청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주사 한국홈페이지: 명주사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발생하고 있는데 더욱더 갑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린 뒤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회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최정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함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 또한 미려한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회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회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